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12월 4주차 주간동향 (12.19.~12.25.)

[2022.12.28.(수), 제6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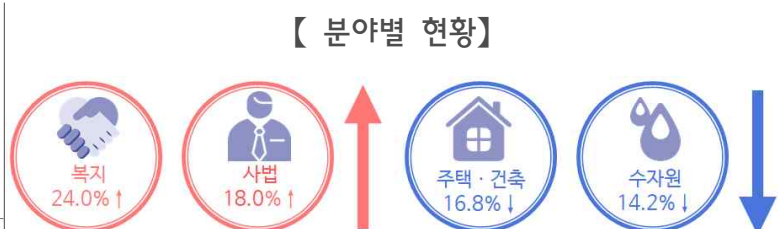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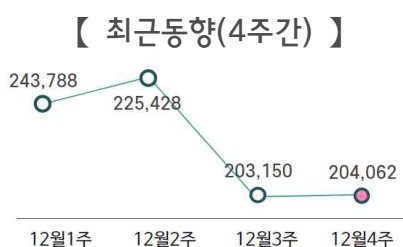
이슈 키워드

순위	12월 3주차(12.12.~12.18.)			12월 4주차(12.19.~12.25.)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불법 주정차	89,702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81,516	생활불편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5,048	생활불편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810	생활불편
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2,227	생활불편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2,194	생활불편
4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436	생활불편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032	생활불편
5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3,422	지역이슈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77	생활불편
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3,333	지역이슈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746	지역이슈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89	생활불편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639	지역이슈
8	위례 신사선(행정절차·기간 단축 요구)	2,471	지역이슈	인천 서구(검단 물류센터 건설 반대)	2,023	지역이슈
9	경기 화성(아파트 사전점검 무효요구)	2,292	지역이슈	덕은지구 입주(버스 신설 요구)	1,788	지역이슈
10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1,784	생활불편	인천 검단(5호선 연장 요구)	1,738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
 : 12월 4주차(12.19.~12.25.) 기간 Top 10 순위 진입 키워드

민원 동향

- 12월 4주차 민원은 204,062건(일평균 29,152건)으로 지난주(203,150건) 대비 0.4% 증가 ※ 안전신문고(47.4%), 국민신문고(34.8%), 서울 등(17.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24.0%), 전북(23.4%) 등 증가한 반면, 광주(23.7%), 대구(7.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송파 동물복지센터 건립 반대 및 수원 ○○단지 폐기물 고지 위반 엄중 대처 요구 등 복지 및 사법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대설에 따른 피해 신고 및 제설작업 등 요구 (4,951건)

- 중대본에서 폭설에 따른 피해 신속 복구와 제설을 당부 하는등 전라·충청·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발생
- 대설에 따른 제설 미비 불만, 학교 휴교 요구, 빙판길 교통사고 우려, 제설함 등 제설 시설 확충 요구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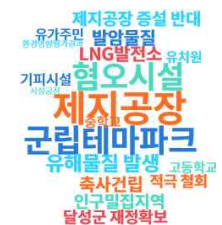
- 동탄 ○○초교 부근 통학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이번 폭설과 추위에 빙판길로 변하여 낙상 사고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미끄러졌습니다. 조속한 제설작업 요청드립니다. (12.22., 경기도 화성시)
- **검토요청** 청주 오송 제설 심각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미리 발효됐고, 10cm나 되는 눈이 왔는데, 어떻게 제설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민원을 읍에 넣으면 구청 핑계를 대고, 구에 말하면 읍사무소에 미루고, 정작 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근본적인 제설작업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12.23., 충청북도 청주시)

【 대설 피해 관련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2022. 12. 23. (금) 폭설피해 담당자: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채민지 과장 강성희 (044-205-5230) / 사무관 문관호 (044-205-5234) / 사무관 박승주 (044-205-5236) 전라·충청·제주 중심 대설피해 신속복구, 중대본부장 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발생된 피해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기에 지원도록 하고, 국민피해 최소와 되도록 철저한 제설" 당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전라권,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로 인한 피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지시하였다. ○ 지난 21일부터 계속된 대설로 23일 18시 현재 중대본에 접수된 대설 피해는 시설물 붕괴 88건으로 비닐하우스 60건, 축사 24건, 창고 2건, 상가 1건, 주택 1건이며, 계량기 등파는 552건, 수도관 등파는 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신고 접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2.12.23.)>	연합뉴스 대설에 막힌 교통 상당 부분 '정상화'...피해규모는 '눈덩이'(종합) 입력 2022.12.25 오후 8:32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 신고 늘어...오남·충남 제설 작업 분주 <연합뉴스(2022.12.25.)>	동아일보 尹 "대설·한파 피해 정부 차원 지원 방안 마련" 긴급 지시 입력 2022.12.24 오후 1:13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설 및 한파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동아일보(2022.12.24.)>
---	--	--

□ 대구 현풍 동물 화장터 설립 반대 (120건)

- 달성군은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현풍읍 일원에 1만 4천134m² 부지에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 추진지역 인근에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이 있는 등 인구밀집지역에 기피시설인 동물화장터 건립 추진 반대



- 군립테마파크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주민들을 기만한 달성군청은 주민들의 희생으로 사업경제성을 따지며 세수를 늘릴려고 합니다. 왜 우리지역만 혐오시설을 4번이나 유치하나요? 인구밀집지역에 기피시설인 동물 화장터 건설 철회를 요구합니다. (12.20., 대구광역시 달성군)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문의 (140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실시}
- 소비기한 표시 변경에 따른 제도기간 표시 관련 문의, 소분 제품 소비기한 적용 방법, 소비기한 표시 위치 등 문의 민원
-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임의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2.23., 식품의약품안전처)
- 23년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용하여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포장은 유통기한을 겉포장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21., 식품의약품안전처)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검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23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또 우유는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나중에 되는데 유통기한으로 입력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12.23.,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 자료 『국민 한살이 기쁨입니다』

보도 일시	2022. 7. 12.(수) 14:00	배포일	2022. 7. 12.(수)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대원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이종식 (043-719-2003)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 식약처장,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 참석과 일제 CEO 간담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7월 12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개최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식종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오유경 처장은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다른 기한이었어요.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 ✓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 ✓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 ✓ 설정실험 등을 통해 식품의 맛·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품질안전한기간 중 소비기한은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

예시 ▶ 생면의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기준이 총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9~9일

유통기한	3개월	유통기한	18일
소비기한	23일	유통기한	3개월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설정안내서 2212

검색해보니 소비기한이 더 길어지는 개념이네요. 그동안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했는데 기한이 길어지면 버려지는 식품폐기를 많이 줄겠어요.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기한이네요.

<소비기한의 기대효과>

- 1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 2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이 감소하여 10년간 소비자는 7조 3천억 원, 산업체는 2,200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 3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나 봐

【 주요 언론보도 】

NEWSIS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일력 2022.12.26 오후 7:38 수정 2022.12.26 오후 7:42

기사내용 요약

내년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23년 한해 제도기간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제품 판매 기간 길어 식품폐기물 감소 기대감...소비자와 분쟁 증가 우려도



〈NEWSIS(2022.12.26.)〉

주간동아

새해부터 ‘소비기한’ 행기세요

일력 2022.12.27 오전 10:02

물어도 되는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소비자 중심 사용 기간



〈주간동아(2022.12.27.)〉

ChosunBiz

김치 소비기한 35일... 식약처, 10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일력 2022.12.23 오전 10: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29개 식용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고값 공개는 지난 1월 23개 식용유형 80개 품목에 이어 두 번째다.



〈ChosunBiz(2022.12.23.)〉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오송 제설작업 문제 해결 요구	1AA-2212-0707195	충청북도 청주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